

이데일리

구글세, 이달 말 윤곽 나온다..삼성·LG·현대차 불뚱 튀나

최훈길 입력 2020.01.04 15:26 수정 2020.01.04 15:50

OECD 등 136개국, 29~30일 기본 골격 합의기로
OECD "구글뿐 아니라 삼성·LG·현대차도 내야"
과세 대상·규모 올 하반기 확정, 법인세 늘듯
실제 적용은 2~3년 후 될듯, 기재부 "적극 대응"



AFP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달 말에 디지털세(구글세)의 기본 골격에 대한 국제 합의안이 나온다. 구글뿐 아니라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현대자동차(005380) 등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다. 정부는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칠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G20) 등 13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인 'BEPS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IF)'는 오는 29~30일에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의 기본 골격에 대한 합의를 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OECD에서 마련한 디지털세 초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 초안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스마트폰·가전·자동차 등 제조 분야 글로벌 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총회에서 이 같은 기본 골격이 합의되면 스마트폰·가전·자동차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에도 디지털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 세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OECD는 한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과세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러셀 밀스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데일리와 만나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가 무형의 요소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수출도 많이 한다"며 "이런 기업들과 관련된 효과적인 디지털세 부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조 이데일리 2018년 12월3일자 <OECD "디지털세, 한국기업 예외 아냐..삼성·LG·현대차도 내야">)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 디지털세를 내야 할지는 올해 하반기에 최종 합의문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포함되더라도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시기는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약 체결, 국회 비준, 국내 법인세법 개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특정기업의 어떤 사업 부문이 얼마만큼 디지털세로 과세될 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 과세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과세 시기는 몇년 뒤인 차기정부 때가 될 것"이라며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OECD 세부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에 대해 시장이 있는 국가에서 매출에 따라 새롭게 과세권을 주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훈길 (choigiga@edaily.co.kr)